

# ‘부당한 현재’ 바꾸기 앞장서는 실천 철학자

컬처 & 피플

철학 고수 김상봉

광주항쟁에서 시대정신 찾아 상호존중의 서로주체성 확립 광주 사회통합지원센터장 맡아

김상봉(56)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최근 광주시가 꾸린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을 맡았다. ‘완장’을 거부해온 그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의 품모에서는 종교인 같은 겸허함이 짙게 느껴졌다.

김상봉 교수는 강단에 머무는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욕망하는 사회의 환부에 메스를 들어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찾는 일을 학자의 의무라 여긴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지금’ 실천해야 할 대안으로 각인하는 등 새로운 철학적 양분을 제공했다.

‘부산사람’인 김 교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람 보다 더 애뜻하게 여긴다. 공저 ‘당신들의 대통령’에는 그 이유가 언급돼 있다. “민중항쟁의 역사를 회상하고 반추하면서, 그 속에서 임태된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명석하게 형상화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이 땅의 철학이 해야 할 일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4·19혁명’, ‘6월 항쟁’의 역사와 그 항쟁을 경험한 민중들의 생각을 모으면 집단지성(여러 사람들의 지혜)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광주항쟁이 인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해석, 영속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석선 선생 등 한국의 선각자들과 민중항쟁을 연구하면서 김 교수는 독창적인 자기철학의 세계를 열었다. ‘서로주체성’의 철학이다. 서양 철학의 근간인 ‘홀로주체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른 주체와의 만남과 연대를 통해서만 생성되는 정신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읽고 광주항쟁을 철학적으로 독해했다.

“서양 철학사의 인간관은 자기가 주체인 인간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갑’이죠. 자기만 주체가 되려는 서양의 야심 때문에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서로주체성’은 주체를 세우면서 그 주체속에 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체를 바로 세우면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 속에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처럼 말이죠.”

김 교수는 올해로 10년째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와 아무 연고가 없는 그는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파격적으로 특채됐다. 철학과 교수 전원이 그를 지지했다. 학문적 업적과 실천적 학자로서 삶이 인정받은 것이다.

전라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중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오해와 폄훼에 시달려온 트



라우마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다. 삼성의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게 대표적이다. “반역, 배신의 도시라고 매도당하는 데 광주 사람이 또 사고 쳤다”는 쪽과 “의로운 일을 했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전라도 사람들이 내력이 있어 배신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호남사람들이 동학에서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노예적인 굴종에 저항했던 때문일 것입니다. 호남분들이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가 ‘우아한 기업’ 삼성이 그렇게 부도덕한 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국사회에 철학자는 많지만 학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철학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이는 드물다. 그는 흥세 화씨와 더불어 ‘학벌없는 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한국사회의 대표적 병폐 중 하나인 학벌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적대적 구도가 내면화 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가 지옥이 돼가는 데 경쟁에서 홀로 살아남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학벌 경쟁을 내려놓고 잘 난

사람, 못한 사람이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철학자의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재가 궁금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재벌의 지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지금은 군사독재가 물러난 자리에 자본의 독재가 들어선 때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독재권력을 민주화했던 것 처럼 자본권력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부당한 현재’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조심 때문이다. 애초 사회변화에 관심이 많아 이론적인 토대를 닦기 위해 공부했다. 꿈은 정치가였다. 그는 ‘공부는 한 자루의 칼을 버리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고상한 철학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정치적인 철학자가 되고 싶어요. 현실을 얘기하고 고민하는 정치적인 철학을 하고 싶어요. 현실의 고통을 기쁨삼아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싶은 것이죠.”

김 교수는 사회통합지원센터를 맡게된 소감을 인터뷰를 마쳤다. “광주의 고통 앞에서 웃기를 여쭈던 저의 자세가 거짓이 아니라면 마음으로 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달달한 3월 별☆장



대인예술야시장

둘째·넷째주 금·토 열려

이달부터 대인예술야시장 ‘별장’ <사진>이 두차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별장 프로젝트 사업단은 지난달 까지 매달 한 차례, 이틀간 열었던 ‘별장’을 이달부터 둘째주 금~토요일과 넷째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에는 오는 13~14일, 27~

28일 진행된다.

이번 달에는 ‘달달한 3월 별장’을 테마로 보름과 관련한 예술작품 전시와 아트상품 판매, 체험거리 등으로 행사를 꾸민다.

전시와 아트 상품 외에도 대인예술야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공연이 마련돼 있다. 흥겨운 풍물과 사자춤을 선보이는 ‘우리 문화 연구회 소리노리’팀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또 인디밴드를 중심으로 한 신나는 거리공연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233-1420.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사랑티켓사업 참가 단체·수혜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 사랑티켓 사업에 참가할 문화예술단체 작품과 수혜자를 모집한다.

광주지역 사랑티켓사업 지원금은 총 8260만원이며, 문화취약계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수혜자들은 연령(7세 이하 8세 이상)과 장르(공연·전시)에 따라 최소 3000원, 최대 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랑티켓 지원대상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www.sati.or.kr)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격을 준다.

사랑티켓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양

한 장르(뮤지컬·연극·무용·아동극·전통·전시 등)의 공연 및 전시를 할 인턴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랑티켓사업을 통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지원 횟수는 수혜자 개인은 연간 10회로 제한되며 각 1회 예매 시, 본인포함 총 4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혜자 단체는 연간 1회에 한해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랑티켓사업에 참가할 문화예술 작품은 현재 사랑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심의를 거쳐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작품을 선정한다. 문의 062-670-791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 숲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생동하는 봄을 맞아 우리지역의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박물관 숲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 정원과 인근 숲에서 열리는 ‘박물관 숲 이야기’의 3월 주제는 ‘봄을 깨우는 대향담청’이며, 박물관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숲 해설, 오감으로 관찰

하기, 놀이, 만들기, 전시관람 등 테마로 구성돼 있다.

이 행사는 산림문화연구소 정숙희, 박계순 강사가 진행하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40명 내외로 운영될 계획이다.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http://www.gwangju.museum.go.kr)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570-7025.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 먹거리 X파일

MC 김진 채널A기자

매주 금요일 밤 11시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